

# 에디슨 한인 성당

Our Lady of Mercy Parish



### 미사 안내

한국어 주일 미사 오전 11:30

영어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0:00

영어 토요일 미사 오후 4:00

평일 미사 (화) 오후 7:00

(수 - 금) 오전 9:00

Website [www.edisonkcc.com](http://www.edisonkcc.com)

Email [edisonkcc@gmail.com](mailto:edisonkcc@gmail.com)

### 성사 및 교리 안내

고백성사 미사 15분 전

혼인성사 6개월 전 신부님께 연락

유아세례 신청서 작성 후 사무실 또는 신부님께 신청

병자성사 신청서 작성 후 사무실 또는 신부님께 신청

예비자교리 매 주일 미사 후

주일학교 매 주일 오전 10:00 - 11:15

### 안내봉사

4월 자비의 모후 Pr. 5월 천상의 지혜 Pr.

### 친교봉사

4/14 텃거스 4/21 부활 포장마차

### 성당 및 사무실 안내

성당 및 The Church of Our Lady of Mercy

사무실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732) 356-1037

근무시간 화 - 금 오전 10시 - 오후 3시

### 성직자 및 평협회장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한상철 빈첸시오

### 복사

4/14 Aibrean Langan, Jecenia Langan

4/21 Christine Lee, Allison Lee

### 전례 봉사자

일시 4/14 4/21

해설 임문수 마르코 백수정 수산나

1독서 김인영 수잔 박정훈 베드로

2독서 맹순영 베로니카 김영준 제네시오

신자들의 기도 백원선 안나 이화자 마틸다

봉헌 유병기, 유용희 백상현, 백용숙

성체분배 광신규, 백영숙 유용희, 오애희

오늘의 성가

Table with 11 columns: 입당, 10, 주를 찬미해, 봉헌, 213,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 성체, 169, 사랑의 성사, 파견, 115, 수난기약다다르니

말씀의 초대 卍 이사야예언자는. 주님의 종은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는다고 한다(제1독서).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셨다고 한다(제2독서). 루카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이다(복음).

제1독서 <나는 모욕을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卍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50,4-7 주 하느님께서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 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를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22(21),8-9,17-18 卍.19-20,23-24(◎2 卍)



(후렴)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 이까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 이까? ○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 대고, 입술을 비쭈거리며 머리를 내젓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 내시겠지.”◎ ○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썰 수 있게 되었나이다.◎ ○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 가지고, 제 속옷 놓고는 제비를 뽑나이다. 주님, 멀리 떠나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신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저는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러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제2독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셨습니다.> 卍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3,26-31 그리스도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필리 2,8-9 참조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 卍 루카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입니다. 23,1-49 ○ 해설자; + 예수님 ● 다른 한 사람 ▣ 다른 몇몇 사람 ◎ 군중 ○ 그때에 백성의 원로단, 곧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이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기 시작하였다. ▣ “우리는 이자가 우리 민족을 선동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게 막고 자신을 메시아 곧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이요?” ○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 빌라도가 수석 사제들과 군중에게 말하였다. ●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목도 찾지 못하겠습니다.” ○ 그러나 그들은 완강히 주장하였다. ◎ “이자는 갈릴래아에서 시작하여 이곳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 곳곳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이 사람이 갈릴래아 사람이라고 묻더니, 예수님께서 헤로데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그분을 헤로데에게 보냈다. 그 무렵 헤로데도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로데는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래전부터 그분을 보고 싶어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일으키는

어떤 표징이라도 보기를 기대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헤로데가 이것저것 물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그 곁에 서서 예수님을 신랄하게 고소하였다. 헤로데도 자기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한 다음,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 보냈다. 전에는 서로 원수로 지내던 헤로데와 빌라도가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하였다. ● “여러분은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한다고 나에게 끌고 왔는데, 보다시피 내가 여러분 앞에서 신문해 보았지만, 이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고소한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헤로데가 이 사람을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을 보면 그도 찾지 못한 것이요 보다시피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 마땅한 것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니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 주겠소.” ○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 “그저는 없애고 바라빠를 풀어 주시오.” ○ 바라빠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자였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 주고 싶어 서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 하였지만,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외쳤다. ◎ “그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을 받아 마땅한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 주겠소.” ○ 그러자 백성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그치며 요구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 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자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풀어 주고,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라고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던 시몬이라는 어떤 키레네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였다. 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자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때문에 울어라. 보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아이를 배어 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 보지 못한 여자는 행복하여라!’ 하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 사람들은 ‘산들에게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 하고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어다오.’ 할’ 것이다. 푸른 나무가 이러한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야 어떻게 되겠느냐?” ○ 그들은 다른 두 죄수도 처형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끌고 갔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겹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빈정거렸다. ▣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 “네가 유대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대인들의 임금이다.’라는 죄명 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그분을 모독하였다. ●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 그러고 나서 그 죄수가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 낮 열두 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에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무릎을 꿇고 잠깐 묵상한다> ○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인대장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 ○ 구경하러 몰려들었던 군중도 모두 그 광경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예수님의 모든 친지와 갈릴래아에서부터 그분을 함께 따라온 여자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미사지향**

연미사	생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명자(세실리아)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li> <li>한정숙(레지나)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li> <li>성태영(바오로), 성용순(미카엘라)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li> <li>김명자(헬레나)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li> <li>김교식(야고보)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li> <li>김응호(알레로)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li> <li>김준호(베드로)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li> <li>이영주님의 영혼을 위하여 - 이은하</li> <li>윤동순(마리아)영혼을 위하여 - 이석중(스테파노)</li> <li>최진모(가브리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 채희백(바오로)</li> <li>윤명섭(아오스딩), 김용환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경희(수산나) 빠른 회복을 위하여 - 수랏상</li> <li>김비오, 마리안나의 가정을 위하여 - 최 율리아나</li> <li>오경숙(세실리아) 자매님의 빠른 쾌유와 영육간 건강을 위하여 - 성가대 / 한지혜(크리스티나)</li> <li>심윤조(이피제니아), 윤영렬(스테파노)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사목위원회</li> </ul>

 **지난 주 우리의 정성**

KCC 주일 헌금	\$1,303	OLM 주일 헌금	\$3,790	미사 참여자 수	189 명
KCC 이차 헌금	\$385	OLM 이차 헌금	\$1,034	감사 헌금	\$1,000 (이종실)
교무금 (\$3,000)	손종철(3-4) 서정근(3-4) 이창우(4)	임문수(4) 허종(3)	이상화(4) 최율리오(4)	김영필(4) 김인자(1-6)	황덕삼(3-4) 오용운(3-4) 박락준(4) 곽신규(1-4)
* 교무금, 개인 감사헌금, 주일헌금, 대축일 감사헌금, 2차헌금 - Payable to <i>Our Lady of Mercy</i> 또는 <i>OLM</i> (월, 세대주 이름 및 본명을 꼭 기입해 주십시오) - <b>교무금과 감사헌금은 봉헌함에 넣지 마시고 사무장에게 직접 주시기 바랍니다.</b>					

**◆ 공동체 소식**

**◆ 2019 Bishop's Annual Appeal**

- 아직 2019년 Bishop's Annual Appeal 금액을 약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성당입구에 비치된 봉투를 이용하여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 2019년 본당 할당금액은 \$35,000이며, 3월 31일까지 납부된 금액은 \$15,544.66(목표금액의 44.4%)입니다.
- 체크로 납부하실 경우 Diocese of Metuchen - Bishop's Annual Appeal 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2차 헌금**

- 4/14 주일에는 은퇴사제 지원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신자등록서 배부**

- 신자등록서 양식은 각 구역장님들을 통해 배부되고, 성당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4월 28일까지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 Rosary Altar Society Bake, Flower sale**

- 미 신심단체 RAS 에서 4/13-4/14 양일간 Bake, Flower Sale 이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 Holy Name Society Spring Raffle**

- Raffle 추첨 일시: 4월 27일(토) 오후 5시 15분
- Raffle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부활포장마차**

- 일시: 4월 21일 (주일) 미사 후
- 장소: 소 주차장 (우천시 친교실)
- 친목단체 주최로 부활 대축일 미사 후 포장마차를 개최하오니 전 신자 참석 및 이웃초대 부탁 드립니다.

**◆ 올뜨레아(여성 제 37 차) 피정**

- 일시: 4월 25일(목) - 28일(일)
- 장소: 뉴저지 뉴튼 수도원

**◆ 제 64 차 맞춤형 성령세미나**

- 일시: 4월 26일(금) -28일(일)
- 장소: Marian Shrine Retreat House, New York
- 문의: 정 요세피나 (908-672-1515)

**◆ 성당 시설 관리 자원봉사자 모집**

- 성당 시설 관리를 도와주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H마트 상품권

• 성모회에서 H마트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 프란치스코, 장인석 미카엘, 최규학 프란치스코, 하건철 안토니오, 오옥순 수산나, 정영옥 수산나, 최혜경 데레사, 최경삼 안나, 김경희 수산나

◆ 소공동체 소식

◆ 전례회의

- 일시: 4 월 14 일(일) 미사 후  
- 장소: 친교실

◆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4 월 14 일(일) 미사 후  
- 장소: 친교실

◆ 구역모임

• 먼로

- 일시: 4 월 14 일(일) 미사 후  
- 장소: 친교실

• 이스트브런스워

- 일시: 4 월 27 일(토) 저녁 7 시  
- 장소: 함철주 (안드레아) 형제님 댁

• 썸머셋

- 일시: 4 월 27 일(토) 저녁 6 시  
- 장소: 유병기 (베네딕도) 형제님 댁

◆ 삼종기도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성모송>
- “주님의 종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송>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복음 묵상 나눔 질문

◎ 복음 나눔

내 마음에 다가온 성경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눕니다. 복음 안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 주시는지를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간단하게 나눕니다

✕ 루카 22,14-23,56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 (루카 23,28)

1 예수님과 여인들의 눈이 마주칩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인들을 오히려 상처투성이이신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고통 중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도리어 내가 위로 받았던 체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루카 23,34)

2. 예수님은 당신을 죽음으로 인도한 이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십니다. 유언처럼 남겨주신 용서의 기도. 기도로 누군가를 용서한 체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루카 23,46)

3. 버림받은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그 누구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아버지 하느님을 기억하며, 맡겨드린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2019 성주간 전례 일정

- 4 월 14 일 (주일) 주님 수난 성지주일
- 4 월 15 일(성월요일) 오전 9 시 미사(영)  
오후 4 시 성유 축성 미사  
St. Francis 메타천 주교좌 성당
- 4 월 16 일(성화요일) 저녁 7 시 미사(영)
- 4 월 17 일(성수요일) 오전 9 시 미사(영)
- 4 월 18 일(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 저녁 7 시 30 분 (한, 영)
- 4 월 19 일(성금요일) 주님 수난 예식 오후 3 시(한, 영)  
십자가의 길(영) 저녁 7 시
- 4 월 20 일(성토요일) 부활절 음식 축복식 오전 11 시  
부활 성야 미사 저녁 7 시 30 분(한, 영)
- 4 월 21 일(주일) 부활 대축일